

建築·室內·樣式

尹道根 弘益大學校 建築科長

樣式이란 簡單히 말해도 그內容과 取扱方法은 多樣하다. 우선 디자이너가 自身の 作業에 使用하는 個人的表現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는가하면 디자인自體의 性質上的表現等 온갖 行爲도 樣式이라고 불려진다. 이경우 樣式을 分析하는데 있어서는 后者의 意味를 가리킨다. 가끔『좋아하는 樣式과 時代』란 質問에 자주 마주치게 되는데 言語의 概念에 對한 正確性을 期한 解釋을 가지고 時代와 樣式에 對한 考慮를 해야 할 것이다.

歷史上 藝術이란 單獨으로 存在할 수 없고 항상 다른 것과의 緊密한 相互關係에서 成立된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建築 室內 디자인이나 家具(furnishing) 繪畫, 彫刻, 그 밖에 모든 要素에는 항상 한 時代에 共通된 樣式上的 많은 類似點을 發見하게 된다. 樣式的 影響은 人類의 觀念과 努力의 모든 側面에 미치고 있는 것이다. 科學 美術 어느 것이나 共通의 概念과 聯關을 갖으면서 發展하고 또 變化해 왔다고 할 수 있다.

文明의 歷史를 대략 더듬어 보면, 세계의 主要한 時代로 分類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첫째는 그리이스의 古典思想·哲學을 代表하는 理想主義의 時代이다. 분명히 그리이스의 建築 彫刻 繪畫 어느 것을 보아도 우리는 거기에 理想主義의 樣式을 인정할 수가 있다. 둘째로 르네상스 初期에 시작하는 리얼리즘의 時代이다. 르네상스 期의 藝術, 繪畫, 彫刻 個性尊重의 社會風潮 더우기 政治思想에 있어서까지 明白하게 概略의 큰 意味로서의 리얼리즘의 例證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셋째로는 現代이다. 우리들의 時代는 目下 심블리즘 時代라 하겠다. 抽象繪畫, 相對性原理는 심블리즘의 時代의 文字 그대로의 象徴이며 現在 이들을 대신하는 것으로 컴퓨터, 電子音樂, 現代數學 등이 登場하고 있다.

以上 어느 時代를 보아도 그 以前의 歷史에 힘입은 點이 많으며 獨立해서 存在하는 것처럼 보이는 時代의 藝術이라도 實際로는 그것에 앞서서 時代의 思想이나 發展過程을 바탕으로 하여 創造되어 온 것이다. 歷史를 過去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오히려 客觀的인 價值評價와 批判을 하기 쉽다. 建築이나 室內의 樣式上的 發展을 볼 때 現在 우리의 身邊에 있는 『傳統的 樣式』이란 것이 18世紀를 中心으로 한 時代의 影響을 가장 濃厚하게 이어받고 있다는 事實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8世紀頃 유럽의 室內나 家具 디자인을 獨創性과는 거리가 먼 것들뿐이라는 現象을 奇異하게 여기는 者도 있다. 그 예로 著名한 英國系 스코트랜드人으로서 建築家겸 室內디자이너였던 Robert Adam 은

디테일에 걸쳐 優美하고 裝飾美術의 本能을 보이고 있으나 그것들은 모든 古典의 潮流에 지나지 않았다. 이 Adam에 있어서도 18世紀의 다른 디자이너들에게도 先代의 樣式의 影響이 지나치게 明白할 정도이면서도 그들이 오늘날 20世紀의 樣式에 決定的이라고나할 先驅者로서의 役割을 다했다고 생각되는것은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하는 事項이다.

어떤 時代의 建築·室內의 樣式을 定義할 경우 家具디자인을 無視할 수는 없다. 家具는 誇張된 存在는 아니나 有形藝術의 하나로서 文學 繪畫, 音樂과같이 時代의 人間의 日常生活이나 觀念을 전해주는 要素가 되기도 한다. 한 時代의 家具나 그 時代를 反映하는 樣式을 理解하기 爲해서는 디자인한者 使用한者의 社會的 政治的 宗教的인 生活態度를 透視하여야 할 것이다.

루이15世의 時代는 優雅하며 華奢한線 纖細한 彫刻 豪奢스러운 椅子를 特徵으로, 當時의 安易하고 편안한 生活像, 即 華麗한 드레스나 寶石, 必要以上の 儀式的禮法의 가지가지 까다로운 속에서 變하기 쉬운것들이 宗教나 政治問題以上으로 當時프랑스의 統治者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다. 美國의 경우 주위에서 兪見되는 材料의 素材에 依해 實用的인 目的과 空間의 經濟的인 利用에 重點을 둔 即『機能的』인 面만을 追求했다.

20世紀의 建築은 1920年代에 이르기까지 確固한 理念을 갖는 디자인 表現으로서 나타내 있지 않다. 그때까지의 流行, 이른바 樣式이라면 大部分이 빅토리아 調였다. 文字 그대로 前時代의 模字·模倣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建築學이나 디자인의 教育에도 그대로 反映되고 있었다.

今世紀 以後 現代디자인이라 불려지는것이 明確하게 表現되기 시작한것은 1920年代 독일에서 있었던 바우하우스派의 創立에 依한것이다. 그후 西歐社會를 中心으로 한 建築디자인은 우리의 世代 우리의 生活樣式 우리의 方式 우리의 素材의 率直한 表現으로 서서히 發展해오고 있다. 家具나 室內디자인의 變化하는 過程은 이른바 典型的인 製造工場이 작은 木工所에서부터 크게 發展한것으로 결코 빠른時日에 이루어진것은 아니다.

더우기 勞動力이 手工業에 依한 熟練 傳統的의 技巧를 몇 百年동안 계속된 傳統을 바꾼다해도 그렇게 容易한 일은 아니다. 現代産業社會에서는 그들이 만들어 傳하는 作品에 依해 消費者의 취미가 이루어지고 있는 實情이다.

一般의 『傳統的인 樣式』에의 嗜好라는것은 어떤 意味에서는 商業主義 産業構造의 範疇속에서 조정되어 口傳되어 온 神話와도 같은 것이다. 結局 建築이나 室內에 있어서는 한 時代의 性質이 다른 時代에 影響을 미치므로서 樣

式이 發展해 왔다는 事實의 認識이 主要하다. 歷史的 事實 歷史的變遷을 아는것은 디자이너에 있어 主要하며 또한 樣式上의 發展을 充分히 理解하고 있는것은 現實의 作業(建築設計過程)을 통해 強力한 武器가 될 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歷史와 現在를 創造와 模倣과 같이 뚜렷하게 區別하여야 한다. 傳統的建築과 室內에 있어서의 樣式을 올바르게 理解하여야 한다. 即 어느 時代의 어느 樣式이 最高라는 等은 있을수 없으며 傳統的 디자인이라든가 近代的 디자인이란 區別는 存在하지 않는다.

다만 『좋은 디자인과 나쁜디자인』의 存在만이 있을 뿐이다.

에너지 소비절약표어

에너지는 国力이다. 아껴써서 愛國하자.
기름으로 만든 전기. 한등꺼서 애국하자.

쓰고나면 再生없다. 에너지를 節約하자.

에너지를 아껴써서 외화지출 막아내자.
너도나도 걸기운, 절약되고 건강준다.